

아일랜드, 농업 개황

아일랜드에서 농업은 EU의 어느 국가들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 산업은 아일랜드 전체 GDP의 9%에 달하는 115억 유로의 소득을 창출함과 동시에 약 16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체 고용의 9%를 담당하며, 68억 유로 상당의 상품을 수출해 아일랜드 수출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2004년 농업개황에 대하여 정리한 후 2005년 농업을 전망한다.

1. 농가소득(Farm Incomes)

EU에서 2004년에는 여러 농산물 시장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몇몇 EU 국가가 낙농 제품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하면서 우유의 공급이 다소 줄었고, 국제 낙농 시장의 경기가 부양되었다. 낙농 농가들은 정부의 지지가격 하락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낙농장려금(Dairy Premium)이라 불리는 이 보상금은 2004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작년 한해 총 6,000만 유로가 지급되었다. 쇠고기 시장 역시 2004년 여름 기간 동안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는 등 활황을 맞이했다. 곡류(cereal)분야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기록적인 산출량을 달성하면서 생산량이 2003년 보다 월등히 증가하였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CSO)은 2004년 12월 9일 발표한 2004년의 투입, 산출, 소득 추정치(December Advance Estimate of

Output, Input and Income for 2004)에서 총 농가소득은 21억 8300만 유로가 증가해 작년 대비 1.3%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 유럽연합 정책

유럽연합 농업이사회(the Council of Agriculture Ministers)의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아일랜드 정책동향은 생산적이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일랜드 지도부는 7차례의 이사회 회의와 100여 회의 유럽연합 위원회 및 실무그룹 회의를 주재한 결과, 20종류의 입법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다음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주목할만한 성과이다.

- (1) 신규회원국에 대한 공동농업정책의 활성화
- (2) 중간평가를 통해 제기된 공동농업정책 간소화의 계속적 이행
- (3) 식품안전 기준의 제고

3. 단일지불계획안(SINGLE PAYMENT SCHEME)

지난 한 해 동안 단일지불계획안을 시행하기 위한 많은 준비가 이루어졌다. 단일지불계획안은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의 가축 장려금(Livestock Premia Schemes) - 착유우 사육장려금(Suckler Cow premium),- 특별 쇠고기장려금(Special Beef Premium), 도살 보상금(Slaughter Premium), 암양 사육장려금(Ewe Premium), 조방화·낙농장려금(Extensification and Dairy Premium Scheme), 경작 원조금(Arable Aid Scheme) - 을 대체하게 된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사회는 단일지불계획안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

고 있다. 단일지불계획안을 통해서 농민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농산물의 보유기간·할당량·재고비율·기타 다른 제도의 요구사항에 자신들의 노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일랜드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는 특별 사례¹⁾의 10,000명의 농민들을 포함하여 13만 3,000명의 농민들에게 ‘단일지불계획안 설명서(Statement of Provisional Single Payment Entitlements)’를 배포했다. 설명서에는 조건부지불계획안의 보조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설명서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농민들은 지방청(Local Offices)과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 홈페이지(www.agriculture.gov.ie)에서 더욱 상세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2004년 12월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 장관은 2005년도 조건부지불계획안의 준비금 설정과 조건부지불계획안 신청기간의 시작을 발표했다. 아일랜드 농민들을 위한 농가별 지불금이 단일지불계획안 재정 한도를 초과한다면 단일지불계획안 준비금의 감소가 불가피 하겠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준비금의 3% 하락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로부터 대략 1만 7,500개의 조건부지불계획안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준비기간 동안 농업을 시작한 농가 6,500개의 신청서가 추가 접수되었다. 이 농가들에 대한 평가과정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와 같이 많은 신청자로 인해 조건부지불계획안 재정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속농가(inheritance saces)의 신청서 7,000개와 낙농 장려금(Dairy Premium) 수혜 대상자이며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피해를 입은 300개

1) 특별 사례의 농민들은 지역 원조(Area Aid)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는 장려금 수혜 대상 농민들이다.

농가의 신청서를 평가 중이다.

새로운 낙농 장려금은 2004년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낙농장려금은 생산량과 연계되어 지급되며, 2004년 3월 31일 낙농 농민들이 개최한 회의에서 결정한 우유할당량(milk quota)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낙농장려금은 2004년 10월 16일부터 지급되었다. 2005년부터 낙농장려금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고 지급될 것이며, 현재의 단일지불계획안에 추가될 것이다.

4. 가축 보건과 후생

광우병(BSE), 브루셀라병(Brucellosis)²⁾, 우결핵(Bovine TB)등의 질병 연구에 있어 긍정적인 발전과 더불어 가축 보건과 질병 퇴치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

광우병은 2002년 333건, 2003년 182건과 비교하여 2004년에는 126건이 발생하였다. 즉, 2004년에는 광우병의 발병이 2003년과 비교하여 30%가 감소하였다. 2004년의 126건 중 120건, 대략 95%의 가축이 1997년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났다.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광우병 발생 건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1996/97년 도의 광우병 통제가 효과적이었었다는 것과 이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광우병 예방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4년의 우결핵과 브루셀라병의 발생 역시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우결핵 반응을 일으킨 소는 2003년에 비해 낮은 2만 5,000~3만 건 이었

2)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짐승의 돌림병 가운데 하나이다.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은 브루셀라속 *Brucella* 그람음성의 짧은 간균이며, 사람의 경우에는 축산업자나 수의사 등과 같이 이환된 가축과 접촉할 기회가 있는 직업에 가진 사람에게 감염이 잘 된다.

다(1999년에는 4만 5,000 건). 2004년에 브루셀라병 반응을 일으킨 가축 역시 2003년에 비해 20%, 1998년에 비해 85% 감소하였다. 더불어 도살된 가축 역시 2003년에 비해 50%가 감소하였다.

‘가축보건컴퓨터시스템(The Animal Health Computer System, AHCS) 도입으로 질병퇴치프로그램의 능력은 매우 증가하였고, 지난 한 해 동안 20개의 DVO를 새로 확장하며 여러 지역에 시스템을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인터넷에 기초한 ‘가축등록 및 이력추적(Animal Identification and Movement, AIM) 시스템’이 기존의 CMMS 제도를 대체하면서 가축 보건 분야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최신의 인터넷 기술이 사용되는 ‘가축 등록 및 이력추적 시스템’으로 인해 농민들은 가축의 상태를 온라인상으로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동안 AIM 시스템 하에서 ‘가축동태조회(Herd Profile Inquiry)시스템’과 인터넷 송아지 등록 시스템이 새롭게 농민에게 제공되었다.

2004년 한해 동안 가축후생과 관련, ‘가축후생자문위원회(Farm Animal Welfare Advisory Council, FAWAC)’의 노력을 포함하여, 가축 후생 긴급 경고 시스템 정착과 가축 후생 기구들에 총 백만 유로가 지급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

4. 식품 안전성

식품 안전성은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서, 행정 관료들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훈련을 통해 농산물 생산과 식품 가공과정 전반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몇 가지 특별 사안의 경우에는 아일랜드 식품 안전 공사(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FSAI)와 협력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6월 맺어진 아일랜

드 식품 안전 공사와의 협력은 식품 라벨링 규정을 포함하여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의 정책 수행 능력을 한층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쇠고기, 가금류, 설탕(건강음료·커피·과일 주스에 들어가는 설탕)을 원료로 하는 식품까지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 안전 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수행 능력 집중은 ‘식품라벨링보고서(Food Labelling Report)’의 주된 제안이기도 했다

유럽의 위생포장(Hygiene Package) 기준과 식품·사료 규정(Food and Feed Regulation)은 아일랜드인의 EU 농업부 수상 임기 중에 채택되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EU 식품·사료 관련 법률은 통합과 갱신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로써 EU 식품·사료 규정은 농민으로부터 식품 소매업자에 이르는 모든 식품 사업 관련 종사자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5. 부문별 현안

5.1. 쇠고기(Beef)

최근 2년 동안 EU의 쇠고기 소비량은 생산량을 초과하고 있다. 2004년의 소비량은 쇠고기 생산에 21만 4,000톤 초과한 762만 톤으로 추정된다.

2004년 EU 쇠고기 가격은 매우 활황세였다. 아일랜드 역시 여름 기간 동안 모든 품목을 통틀어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는 등 활황을 맞이했다. 통상적으로 매년 3사분기에 일어나는 쇠고기 가격 하락 기간 동안에도 2003년에 비해 생후 3년 미만의 아직 새끼를 안 낳은 암쇠고기의 가격은 2%, 보통의 암쇠고기는 10%, 전체적으로 1%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가장 최근의 통계 수치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쇠고기 수출액이 전체 아일랜드 농식품 수출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일랜드

랜드에 있어 쇠고기 부문의 중요성을 분명히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쇠고기 수출의 화두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왔다. 이는 두 가지 주된 요인이 작용했는데 첫째, 수출시장이 제 3세계의 시장으로부터 EU내 시장으로 크게 이동하였다. 그로 인해 쇠고기 수출의 87%가 EU내 시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고품질의 쇠고기 생산으로 인해 소매 시장에서 아일랜드 쇠고기가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더불어 고품질 쇠고기 생산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장 개척에 긍정적인 영향을 낳고 있다.

러시아는 아일랜드 쇠고기의 제3세계 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에도 러시아에 4만 1,000톤의 쇠고기를 수출하였다. 이집트에도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다소의 쇠고기를 수출하였다. 알제리도 지난 10월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 하여 신선육과 냉동육을 중심으로 아일랜드 쇠고기를 수입하였다. 냉동육을 중심으로 제3세계 시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004년 8월 1일, 쇠고기 도체 등급화 서비스(Beef Carcass Classification Service)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제 쇠고기 등급에 대한 책임이 정부로부터 산업부문에 이전되었다. 이제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의 역할은 쇠고기 도체 등급화 서비스의 관리 감독과 통제의 역할에 머물게 되었다. 쇠고기 등급화의 기계화 작업이 착수되었으며, 각 기계는 승인된 주요 쇠고기 수출 공장에 설치되고 있다.

승인된 쇠고기 수출 공장 중 95%가 기계를 이용해 등급화 작업을 수행 중이며 나머지 공장들은 수작업으로 등급 작업을 하고 있다.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는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기계의 구입과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쇠고기 등급매기기 기계화 작업은 시장성 있는 쇠고기 생산과 시장과의 원활한 피드백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EU와 전세계 시장에 고품질의 쇠고기 공급자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아일랜드

쇠고기 산업에 큰 일조를 할 것이다.

EU와 레바논과의 생우 무역은 아일랜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유럽 내에서 생우들의 주된 종착지는 북아일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이다. 2003년에는 각 지역으로 총 22만 1,000마리의 생우가 수출되었지만 2004년에는 그에 비해 44%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로 인해 아일랜드내의 생우 가격이 다소 상승 기미를 보였으며, 쇠고기 수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생우 무역은 쇠고기 무역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아일랜드 쇠고기의 EU내 시장과 제 3세계 시장에서의 접근을 자유롭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선적을 용이하게 하고 기타 제반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11월 농업 이사회에서는 수출되는 가축의 후생 증진과 아일랜드의 생우 수출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였다.

5.2. 우유(Milk)

2004년 낙농분야는 안정된 가격과 EU와 국제 시장에서의 낙농 식품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활황을 맞이하였다. 현재 EU의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와 버터의 가격은 정부가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몇몇 EU 국가의 우유 생산 감소로 인하여 EU 시장의 낙농 제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농민이 수취하는 우유가격은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낙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추가적으로 낙농장려금을 받고 있다. 낙농장려금은 정부 지지가격 감소에 따른 부분적 보상책이며, 지난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12월 22일 영농의지가 강한 우유 생산 농민들에게 더 많은 할당량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우유 할당량 혁신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5.3. 양(Sheep)

2004년의 양 무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04년도의 양 가격과 생산은 2003년보다 약 14% 높은 수준이다. 개인단위의 양 수요증가와 수출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양 시장은 매우 안정적이었다.

5.4. 돼지고기(Pigmeat)

돼지는 사료 가격 하락과 돼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4년 하반기에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2004년 도축된 돼지는 약 270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러한 돼지의 호경기는 2005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낮은 사료 가격과 충분하지 않은 돼지 공급으로 인해 2005년에도 돼지는 농가 소득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6. 농식품 산업의 발전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의 식품산업정책은 식품산업의 기술 발전과 기업 간의 경쟁 유도, 소비자 지향적인 식품 산업,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식품 산업을 목표로 하여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기업들이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도록 강력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아일랜드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수 불가결할 것이다.

6.1. Bord Bia 와 Bord Glas³⁾의 통합

2004년의 개정된 Bord Bia 법률에 따라, Bord Glas는 2004년 7월 1일부로 Bord Bia로 통합되었다. Bord Glas가 담당하던 원예업무가 Bord Bia로 이관

3) Bord Bia와 Bord Glas는 아일랜드 식품 위원회로써 아일랜드 식품·음료·조경 공급업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되고 제2 원예 위원회(Horticulture Subsidiary Board)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번 통합의 목적은 식품과 삶의 쾌적함(amenity)분야의 발전을 더욱 효율적이고 집중화시키고자 함이다.

6.2. 제도적 식품연구계획

국가발전계획 하에 1700만 유로가 지원되어 각 대학들과 Teagasc⁴⁾사에 의해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주로 식품 안전성과 새롭고 혁신적인 식품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연구 성과는 개별 평가되어 경쟁적 선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6.3. 자본투자계획

2004년 12월,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 수상은 자본투자계획 하에 농식품 가공 및 마케팅 분야에 총 41개 프로젝트 진행과 1,400만 유로 지원을 발표하였다. 원예 조성, 달걀 포장, 가축, 곡식, 감자 분야의 마케팅 증진과 식품 가공 시설 조성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6.4. 라벨링(Laelling)

2004년 초에 닭고기 라벨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 사항은 EU외부의 시장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닭고기는 원산지과 유통기한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항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는 닭고기에 대해서도 등급, 무게 당 가격, 가공지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쇠고기의 라벨링에 대해서도 고려 중에 있다. 과일주스와 잼, 젤리, 마멀레이드의 구성성분과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2006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 식품 안전청은 소비자와 무역업자들을 위해 라벨링·구성성분과 관련한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4) 연구기관

6.5. 홍보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는 아일랜드 달걀 마케팅사(Irish Egg Marketing Ltd)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달걀 마케팅 규칙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advertising)를 통해 1년 동안 홍보할 예정이며, 총 150,000유로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이 비용은 EU 집행위원회,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 무역업체가 5:2:3의 비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6.6. 소비자와의 연대(Consumer Liaison)

모든 소비자들을 염두 하는 식품 정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04년 일년 동안 소비자를 대변하는 이들과 함께 라벨링, 유전자변형식품, 가축 의약품 등에 관하여 논의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소비자 대변인들은 연말에 보고서를 발행하여 식품 가격 분석을 위한 감독관을 요청했으며, 가격 추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중 몇 가지 제안은 실질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7. 농가투자계획

2004년 한해 농장투자계획에 약 2,700만 유로가 투입되었다(쓰레기 관리 1,620만 유로, 시설투자보조 700만 유로, 낙농가 위생 사업 300만 유로, 기타 기업 30만 유로).

2003년도의 ‘지속적인 진보를 위한 협약(Sustaining Progress Agreement)’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2004년 초에 농장 쓰레기 관리안과 낙농가 위생 계획의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수정된 계획에는 최저농가소득의 상승과 최고 투자액의 상승이 포함되었다.

8. 농촌발전 규정

2004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 이후의 농촌지역 지원을 위한 제안서를 발간하였다. 제안서는 농장 투자, 한계지역, 농업환경, 임업, LEADER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2004년 11월 농업이사회에서,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 수상은 제안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언급하며, 한계지역 지원·산림 지원 감소·농지 재등급화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수상은 12월의 농업이사회에서 EU 농업집행위원 Fischer Boel과의 만남을 갖고 위의 특별사안들과 아일랜드의 농촌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출처: 아일랜드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
(유찬희 ruledes@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